

DAY 48 · 5부 안을 들여다보기

컴퓨터는 '사과'라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을 까? — 뜻을 숫자로

하루 5분 AI 수업 · 2026년 10월 24일

뜻을 숫자 묶음으로 바꾸면, 비슷하다는 말이 '가깝다'가 돼.

한 줄로 말하면

1 컴퓨터는 글자를 모르고 숫자만 다뤄. 그래서 단어 하나를 **숫자 여러 개가 묶인 값**으로 바꿔 놓고 써.

2 아무 숫자나 붙이는 건 아니야. 같이 쓰이는 말이 비슷하면 숫자도 비슷해지게 배워서, **뜻이 가까운 말끼리 가까운 자리**에 놓이거든.

3 뜻이 자리로 바뀌면 **가깝다·멀다를 계산으로 잴 수** 있어. 이게 내일 배울 '비슷한 것 찾기'의 바탕이야.

글자로 볼 때 vs 숫자 묶음으로 볼 때

글자 그대로

- '개'와 '강아지'는 완전히 남
- 글자가 다르면 단말일 뿐
- 얼마나 비슷한지 잴 수 없음

숫자 묶음으로

- 뜻이 비슷하면 숫자도 비슷
- 가깝다·멀다를 잴 수 있음
- 처음 보는 조합도 짐작 가능

숫자를 사람이 정해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양의 글을 읽으며 '같이 쓰이는 말이 비슷하면 숫자도 비슷하게' 스스로 맞춰 가.

핵심: 뜻을 자리로 바꾸면, 가깝다와 멀다를 계산할 수 있다

단어를 뜻 조각으로 켜고 꺼 보기

사과

켜진 칸 5개 — 기준 단어

먹는 것

달다

둥글다

나무에서

노랑다

발로 찬다

껍질 있다

사과를 뜻 조각으로 쪼개면 이렇게 돼. 진짜 AI는 칸이 수백 개고 칸마다 이름이 붙어 있지도 않아. 여기서 보이게 하려고...

바나나

사과와 4칸이 겹친다

먹는 것

달다

둥글다

나무에서

노랑다

발로 찬다

껍질 있다

둥글지 않고 노랑다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거의 같아. 그래서 바나나의 숫자 묶음은 사과 바로 옆자리에 떨어져.

축구공

겹치는 칸이 하나뿐

먹는 것

달다

둥글다

나무에서

노랑다

발로 찬다

껍질 있다

둥근 것 하나만 겹치고 나머지는 전부 달라. 그래서 축구공은 사과에서 멀리 떨어진 자리에 놓여. 이렇게 뜻의 차이가 자리의...

단어 하나를 일곱 칸짜리 숫자 묶음이라고 치자. 단어를 바꿔 누르면 어떤 칸이 켜지는지 보여. 켜진 칸이 많이 겹칠수록 가까...

웹 수업에서 직접 해 볼 수 있어요 · next-token.net/learn/day-48/

세 문제만 풀어 보자

Q1

단어를 숫자 묶음으로 바꾸는 이유는?

- ① 글자를 예쁘게 쓰려고
- ② 저장 공간을 아끼려고
- ③ 컴퓨터가 숫자만 다루고, 뜻의 가까움을 계산하려고
- ④ 맞춤법을 고치려고

Q2

숫자가 비슷해지는 단어는 어떤 단어일까?

- ① 글자 수가 같은 단어
- ② 짧은 단어
- ③ 먼저 배운 단어
- ④ 같이 쓰이는 말이 비슷한 단어

Q3

실험에서 축구공이 사과와 먼 이유는?

- ① 겹치는 칸이 하나뿐이라
- ② 글자가 길어서
- ③ 나중에 나와서
- ④ 칸이 더 많아서

왜 그런지까지 알고 가자

Q1

③

컴퓨터는 글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숫자로 바꿔 놓으면 다루는 것도 되고, 두 단어가 얼마나 가까운지 계산으로 잴 수도 있어.

Q2

④

'사과를 먹었다'와 '바나나를 먹었다'처럼 주변에 오는 말이 비슷하면 숫자도 비슷해지게 배워. 그래서 뜻이 가까운 말끼리 가까운 자리에 모여.

Q3

①

바나나는 사과와 네 칸이 겹쳤지만 축구공은 '둥글다' 하나만 겹쳐. 겹치는 칸이 적을수록 숫자 묶음이 멀어지고, 그게 곧 뜻이 멀다는 뜻이야.

뜻을 숫자 묶음으로 바꾸면,
비슷하다는 말이 '가깝다'가 돼.



내일은 비슷한 것 찾기 — 두 문장 중 어느 쪽이 더 가까운지 직접 골라 보자.